

윤기 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

사회복지사는 교육자, 시민운동가, 정신적 지도자

호암재단은 지난 6월 1일 호암아트홀에서 호암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와 전윤철 감사원장,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 등 정부 관료와 이견희 삼성 회장, 정운찬 서울대 총장, 요시카와 히로유키 일본 국제상 이사장 등 각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호암상은 과학상, 공학상, 의학상, 예술상, 봉사상 등의 부문으로 시상되는데 올해의 봉사상은 공생복지재단 윤기 명예회장에게 돌아갔다. 윤기 명예회장은 부친이 설립한 목포 공생원을 이어받아 아동, 장애인 등 불우 청소년을 위해 헌신해 왔고 일본에서도 재일동포 고령자의 노후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한·일간 사회복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해 온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한편 호암상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전 회장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제정된 상으로 현재까지 8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호암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1968년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20년, 일본에서 20년을 활동하였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잊지 않은 것 같아 고맙다. 상이란 것이 받으면 그에 따른 보답을 해야 하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 출신 사회복지사들이 대거 당선 되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사회복지사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좋은 사회만들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다. 그리고 그런 기본정신으로 일한다면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계로 진출해서 한국의 복지선진화에 기여해주었으면 좋겠다.

윤기

출생 : 1942년 전남 목포 출생
 학력 : 강남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경력 : 1968년 - 1977년 목포 「공생원」 원장
 1977년 서울소년소녀 직업훈련원장
 1987년 - 1991년 한국사회복지사업회 부회장, 회장
 1977년 - 현재 사회복지법인 「공생복지재단」 회장, 명예회장
 1988년 - 현재 일본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 이사장
 수상 : 1978년 제22회 「소파상」 수상
 2000년 마이니치신문 「사회복지상」 수상
 2001년 일본사회공헌지원재단 사회복지공헌자 표창
 2002년 일본국제교류기금 「지역교류 진흥상」 수상
 2006년 제 16회 「호암상」 사회복지봉사상 수상
 저서 : 「어머니는 바보야」 「김치와 우메보시」 등 다수

“ 사회복지사는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 ”

◆ 처음 사회복지 공부를 할 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친구들이 예전에는 사회복지도 학문이나고 놀렸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사회복지한다고 나한테 지문을 구하기도 한다.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복지사는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에 교육자여야 하고 시민운동가여야 하고 정신적 지도자여야 한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은 사회복지사에게 작은 영웅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내가 40년 넘게 사회복지를 해오다 보니 사회복지란 주고 받는 것 같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주고 기쁨, 만족 등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2009년에 한국복지역사관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목포에 만들 경우는 아주 작게 상징적으로 만들고, 서울에 만들 경우에는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사회복지를 공부할 수 있는 센터로 숙박시설, 영상시설까지 갖춘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 생각이다.

또 2008년이 공생복지재단 창립 80주년을 맞는 해이다. 때문에 80주년 기념사업 발족을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